



**스타벅스, 취약계층 장애인 치과 수술비 1억 지원**

스타벅스코리아는 취약계층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 수술비 지원 기금 1억원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김영훈 대외협력팀장(왼쪽),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정한 대외협력실장(왼쪽 가운데), 스타벅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점 권순미 점장,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오른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동아에스티-에이아이트릭스, 헬스케어 사업 맞손**

동아에스티는 지난 5일 서울시 동대문구 유동동 본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아이트릭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왼쪽)과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NH투자증권, 유엔글로벌콤팩트 리그그룹 등극**

NH투자증권이 ESG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의 리그그룹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 대표(오른쪽)와 이동건 UNGC 한국협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HMM, 시리아 난민 등 취약계층 국제 구호물품 운송**

HMM이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 구호물품 운송을 후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제 구호활동은 국내 인권전문 NGO 기관 휴먼아시아와 함께 진행하며,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및 취약계층에 향한 의료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HMM



**금투협, 칠성부대 방문... 장병 위문성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과 동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칠성부대(7사단)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7보병사단장, 기동호 코리아에셋증권 대표,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 김정선 한국토지신탁 대표. /금융투자협회



홍경안 의  
시시일과

지난 4월 17일, 국제적 문화예술 노동자 그룹인 '대량학살 반대 예술 연맹'(Art Not Genocide Alliance, ANGA)은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적힌 붉은색 전단지를 뿌리며 이스라엘 국가관의 베니스비엔날레 참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라별 전시장이 밀집해 있는 자르디니(Giardini) 내 일원과 리알토 다리(Rialto Bridge) 등지에서 이뤄진 시위에 앞서 'ANGA'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의 전시 참가 금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청원에는 예술가, 큐레이터, 문화계 인사 등 2만4000여 명이 서명했다.

가자지구 내 주민들을 무차별적

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보이콧(Boycott)은 다른 예술 장르에서도 전개됐다. 전 세계 출판·문학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인종청소'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출판기관을 통한 공모를 거부한다'는 선언문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영화계도 침묵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영화인 700여 명은 제81회 베니스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이스라엘 감독 대니 로젠버그(Dani Rosenberg)의 영화 '개와 사람에게 관하여'(Of Dogs and Men)에 대해 전쟁의 책임 여부는 외면하면서 이스라엘을 미화한다며 상영 취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지난 달 3일 한국 문화예술인 800여 명 역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 철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처럼 국외 미술인들과 국내외 영화계, 문학·출판계 구성원들은 지난 1년간 팔레스타인인 4만여 명을

비롯해 레바논과 이란인 등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해한 이스라엘에 분노하며 다원적 연대를 통해 21세기 제노사이드(Genocide)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이용해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는 이스라엘 문화 기관들의 아트워싱(Art washing)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계는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억압에 대한 저항과 민주·평화·비폭력적 가치를 추구하고 1995년 출범한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행사에 역대 최대인 30여 개의 국가관(파빌리온)을 마련하며 이스라엘 문화 기관인 CDA홀론을 포함시켰음에도 소위 지식인이라는 이들조차 끔찍한 전쟁과 광주비엔날레의 위선적 태도를 언여화, 문자화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출판·문학계의 선언문을 생각하면 참으로 겹언쩍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건 따로 있다. 바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의 인식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국가 전시가 아니라 CDA홀론이라는 미술 기관에서 하는 전시"라고 했다. "광주비엔날레가 전쟁을 강행하는 나라(이스라엘)의 특별전을 여는 것은 부끄럽다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왜 비엔날레에 그런 정치적 이념을 대입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엔날레 공식 보도자료에 이스라엘을 31개의 파빌리온 중 하나로 묶어 발표한 것은 자기 부정이다. 집단학살 방관 기관과 전쟁 미화를 거부한 출판·문학인들, 영화인들은 모두 이념 집단이다. 부정의는 그릇됨과 올바름의 영역이자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국제 미술행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가장 부끄럽다.

/미술평론가

**자동차기자협회 “이달의 차, ‘더 뉴 캐스퍼’”**

상품성 6.7점 등 총 31.3점 기록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024년 11월의 차에 현대차 더 뉴 캐스퍼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는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현대자동차 더 뉴 캐스퍼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에 링컨의 더 뉴 링컨 에비에이터,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 450 d, 현대자동차 더 뉴 캐스퍼(브랜딩명 가나다순)가 11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더

뉴 캐스퍼가 31.3점(50점 만점)을 얻어 11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현대차 더 뉴 캐스퍼는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7.0점(10점 만점)을 받았고, 안정성 및 편의 사양, 상품성 및 구매의향도 부문에서 각각 6.7점을 기록했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2021년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선보인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캐스퍼는 SUV의 단단함을 부각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최신 안전 및 편의 장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웨이 서장원 대표(왼쪽)가 임직원 자녀와 서울 구로 본사에 있는 '코웨이 생태숲 1호'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생태숲 1호 조성**

코웨이가 친환경 ESG 활동 일환으로 서울 구로구 본사 지타워 3층 야외 공원에 '코웨이 생태숲 1호'를 조성했다.

6일 코웨이에 따르면 생태숲 프로젝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산림청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을 생태숲에 식재해 야생 동물에게 서식처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이다.

코웨이 생태숲 1호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대한항공-공군대학, 국방 정책·기술 교류협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연구

대한항공이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공군대학과 협력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5일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 기술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대한항공과



2024.11.05 (화) (주)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오른쪽)과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이 MOU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공군대학은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인적 자원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은 "점차 복잡해지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완성도는 매우 중요하며, 공군대학과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에이스침대, 침대 부문 품질만족지수 1위**

에이스침대가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조사에서 19년 연속 침대 부문 1위를 달성했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간간한

품질경영 원칙 아래 한국 침대 업계의 과학화를 선도해 왔다.

에이스침대는 올해 '침대=과학'이라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더욱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

해 디지털 캠페인을 '침대는 왜 과학일까?' 시리즈 영상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안성호 대표는 "앞으로도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수면 환경을 완성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이안순(향년 83세)씨 별세, 이수원(두산에너지빌리티 플랜트EPC 수석)·이성원(NICE 신용평가 IS실장)씨 부친상, 유근영·정해임씨 시부상, 이주현(셀트리온), 이영욱(원양건축사사무소), 이홍욱씨 조부상 = 5일 오후 8시47분, 부산시민장례식장 401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경산 경맥백합공원. 051-636-4444

▲오영호(향년 89세)씨 별세, 박문수(우먼컨슈머 대표)씨 장인상 = 5일 오후 6시, 서울직접사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2-2002-8444

▲박영길씨 별세, 박용주(울산경제신문 eTV 사장)씨 부친상 = 6일 오전,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055-214-1900